

II. 초기 천주교의 충청도 선교와 사회문화적 특성

조광 ■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1. 머리말

조선후기 천주교 신앙에 대한 연구는 서울과 경기의 양근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천주교회가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 없이 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탄생되었다. 이렇게 터득된 천주교 신앙은 곧 호서(湖西)와 호남지방으로 확산되어 갔다. 수용 초기 천주교 신앙은 전파된 지방의 특성과 긴밀히 관련을 맺으며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19세기를 전후한 한국천주교회사의 초창기, 호서지방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몇 편의 연구논문이 있다.¹¹⁾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활용된 자료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연대기 자료로서 『일성록』(日省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을 우선 주목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사학정의』(邪學懲義)의 경우에도 충청도의 초기 천주교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1801년 전반기 홍주의 영장을 지낸 노상추(盧尙樞)의 『일기』(日記) 및 1790년 말부터 1792년 초까지 충청감사를 지낸 박종악(朴宗岳)의 『수기』(隨記)가 확인되었다. 이 자료들은 1791년 진산사건 및 1801년의 천주교 박해, 즉 충청도에서 전개된 초기 교회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전달해 주는 자료였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존연구 업적을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과정에서는 이 지역의 선교가 가지고 있던 사회문화적 성격을 충분히 밝히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충청도 지역에서 초기의 천주교 신앙과 신앙인이 드러낸 사회문화적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충청도 지역에서 전개된 천주교 선교 상황을 주목하겠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 지역의 신자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천주교에 대한 인식, 및 그 사회문화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충청도 지방의 천주교 신앙은 그 전파 과정이나 수용자층이 가지고 있던 특성 및 신앙 이해의 방식에서 다른 지역과 일정한 차이가 있음은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¹²⁾ 본고에서는 그 전파의 특성과 구조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사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한다.

11) 유병기·주명준, 1982, 「충청도의 천주교 전래 : 이존창의 활동을 중심으로」 『최석우선부 화갑기년 한국교회사논총』, 한국교회사연구소.

조광, 1985, 「19세기 해미 지방에서의 천주교신봉」 『남도영교수 교회기념논총』, 민족문화사.

이원순, 2000, 「내포 천주교회사의 의의」 『백제문화』 29, 공주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임신민, 2000, 「조선후기 내포 지방의 역사지리적 성격」 『백제문화』 29, 공주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차기진, 2011, 「병인박해와 충청남도 순교자에 대한 연구」 『역사와 교회』.

차기진, 2002, 「이존창(루도비코 곤자카)의 생애와 신앙」 『교회사연구』 19, 한국교회사연구소.

차기진, 2007,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자 연구」 『교회사학』 4, 수원교회사연구소.

차기진, 2010, 「조선 후기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 전파 과정 연구」 『한국 천주교회사의 빛과 그림자』, 디자인 흐름.

방상근, 2010, 「18세기 말 내포 천주교회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시론」 『한국 천주교회사의 빛과 그림자』.

장유승, 2014, 4.12, “1791년 내포 : 박종악과 천주교 박해”, 제180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발표회 발표문.

방상근, 2014, 6.28, “『수기』와 『노상추 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말 충청도 교회”, 제181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발표회 발표문.

12) 조광, 1985,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 출판부, 47~50쪽.

이 글은 충청도 지역에 전래된 신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이 수용 초기의 천주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이 글은 성리학 일변도의 사회로 규정되고 있는 조선후기 사상계가 가지고 있던 다양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충청도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글은 다른 지역의 천주교 수용과 철저한 비교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한성은 추후의 논고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 충청도 선교의 전개

1) 선교 과정

(1) 전수자

충청도 지역 천주교 수용은 충청도인과 서울이나 근기지역의 서학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이존창, 홍낙민, 김종현, 이도기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우선, 내포의 사도로 불리던 이존창은 양근의 권일신에게 글을 배우기 위해 갔다가, 서학에 접하게 되었고, 이를 충청도에 널리 전하는 역할을 했고 그가 살던 내포는 충청도 천주교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사실에 관한 자료로는 다음의 언급을 주목할 수 있다.

(이존창은) 타고난 재주가 비상하여,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 더 완전하게 배우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 어떤 유명한 선생을 찾아 배우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권씨(權氏) 집안 학자들의 평판은 한창 높았다. 이단원은 그들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권일신 사베리오는 자기 새 제자의 좋은 자질과 훌륭한 품성에 매혹되었다. …… 권일신은 이내 천주교를 그에게 알려주고, 믿어야 할 중요한 신조뿐만 아니라, 특히 천주교인의 본분과 그 실천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 이단원(존창)은 루도비꼬 곤자가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 스승으로부터 고향에 돌아가 이번에는 자기도 전교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으로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에 처음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내포는 늘 열심한 천주교인들과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었다.¹³⁾

13) 달레 지, 최석우·안응렬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 서울 :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312~313쪽.

그런데 이존창은 자신에게 천주교를 가르쳐준 인물이 서울의 김범우(金範禹)였다고 답하며, 자신이 권일신에게 배웠던 사실을 은폐한 바도 있었다.¹⁴⁾ 이는 1801년 같은 시기에 천주교 관계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권일신의 형인 권철신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된다.

한편, 예산 출신인 홍낙민의 경우에는 조정에서 이조 좌랑을 역임했던 증견관료였다. 그는 출신지 예산에 전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곳을 자주 방문할 수 있었다. 홍낙민의 신분은 양반이며, 조정의 고급 관료였다. 홍낙민은 권일신의 인도로 입교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향리 예산을 왕복하면서 자신이 새롭게 터득한 천주교 신앙을 그곳에 전파해 나갔다. 그렇다면, 이존창이나 홍낙민은 서로의 신분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지만, 함께 천주교를 동문수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권일신과의 접촉은 충청도에 서학 즉 천주교가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종현도 천주교 입교의 계기는 그가 서울에 올라가 김범우의 신앙집회에 참석하여 그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¹⁵⁾ 그리고 충주의 이기연은 권일신의 조카 사위였고, 충주의 신도였던 이기연(李箕延)은 권일신의 조카랄 사위로 삼고 있었으며, 또한 이곳의 이재섭(李載燮)은 권철신의 사위였다.

이상의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충청도 지역에 천주교 신앙의 전파자들은 서울이나 양근 등지에서 천주교 신앙을 전수받아 자신의 향리에 이를 전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그 신앙을 전파시켜 천주교 신앙은 충청도 내에서 급속히 전파되어 나갔다.¹⁶⁾

(2) 전파시기

충청도에 천주교가 전파된 시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 전파시기는 충청인 가운데 자신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수해 준 사람의 동향을 감안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례로 김종현을 주목하게 된다. 면천 솔피 출신 김종현은 자신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람을 김주부(金主簿) 즉 김범우(金範禹)라고 했기 때문이다.¹⁷⁾ 그런데 김범우는 이른바 을사추조적발 사건(1785)으로 인해서 충청도 단양으로 유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김종현이 김범우와 접촉한 것은 김범우가 단양으로 유배된 이후의 일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유배죄인에 대한 관리규정을 볼 때, 유배자를 감시하던 보수주인(保授主人)의 눈길을 피해 김범우가 유배지 단양에서 천주교를 타인에게 전파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 『사학죄인 이가환등추안(邪學罪人 李家煥等推案)』, 『추안급곡안(推案及鞠案)』, 서울 : 아세아문화사, 12, 124쪽, 『일성록(日省錄)』 정종, 기미년 8월 3일조.

15) 『사학정의』, 불함문화사 영인본, 50쪽, “명례동거명부지 김주부 이사학교덕산김종연형제(明禮洞居名不知金主簿 以邪學敎德山居金宗連兄弟)”.

16) 이존창의 제자인 김광옥, 김홍철, 김삼득의 경우나, 김광옥의 제자인 김정득의 사례 및 홍낙민에게서 전수받은 강완숙 등과 같은 예들을 통해서 ‘제자의 제자’를 통한 전파라는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17) 그가 이와 같이 실토한 것은 경우에 따라시 자신에게 신앙을 전해준 인물을 숨기기 위한 방책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이미 사망한 김범우에게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자신에게 신앙을 전해준 생존해 있던 인물을 보호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충청도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었던 시기는 조선교회가 1784년 9월 경에 성립된 이후 김범우가 유배당한 1785년 사이로 산정하는 데에 좀 더 개연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충청도 지역에 천주교 신앙은 일시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즉, 충청도 내 각 지역에 천주교 신앙을 전파한 사람들이 여럿임을 감안한다면 1785년 이후에도 이 지역에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도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3) 전파지역

충청도에서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지역은 상당히 광범하게 펼쳐져 있다. 이 가운데에서 내포(內浦) 지방은 충청도 천주교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곳으로 생각된다. 달래는 이존창이 충청도 내포 지방에의 천주교 전파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존창(存昌)이라고도 부르는李大원이라는 청년은 넓고 기름진 내포(內浦) 평야의 접경에 있는 충청도 천안군(天安郡) 여사울 양민(良民)의 농가에서 태어났다....그는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으로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저 유명한 내포 천주교회에 처음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내포는 늘 열심한 천주교인들과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었다.¹⁸⁾

충청도에서 천주교 신도의 분포상황을 보자면 1791년의 박해와 그에 후속하여 전개된 천주교 탄압 당시 천주교에 대한 조정의 조치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이 가운데 정조는 천주교와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조정에 있는 주요 관료들을 지방으로 보외(補外)시켰다. 즉, 1791년 이후 정조(正祖)는 자신이 신임하던 1795년 이가환을 충주목사로 보외시켰다. 이는 이곳이 충청도 일대에서 '사학'(邪學)이 치성(熾盛)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¹⁹⁾

또한 정약용은 홍주(洪州)의 금정역승(金井驛丞)으로 보외되었는데 이는 천주교를 학습하는 역속(驛屬)들을 '회오'시키기 위해서였다는 『다산선생연보』(茶山先生年譜)의 기록 등은 이 지역에서 천주교가 성행했었다는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다. 정조가 이가환을 특별히 충주로 보외시킨 데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다. 즉 당시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곳은 내포지방 일대였다. 내포지방의 교회는 그 자신의 신분이 높지 않았던 이존창이 주로 포교를 담당했던 지역으로서, 양인들이 그 신앙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충주는 “한강 상류로서 물길로 왕래가 편리하므로 예부터 이곳에 사대부가 많이 입거(入居)했다”는 이중환(李重煥)의 기록에서처럼, 남한강 수로(水路)를

18) 달래 지, 최석우·안용림 역, 『한국천주교회사』 상,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312~313쪽.

19) 「정조실록」, 19년 을묘 7월 갑술조.

이용하여 서울 및 양근, 광주(廣州) 등의 지역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근기지방의 명문과도 연결된 곳이었다. 정조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 및 행정상의 비중이 높은 충주로 이가환을 보외시켰다.

천주교 초기 교회사에서 충청도 지방에서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었던 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출신의 신자들 내지는 순교자들을 주목할 수 있다. 1794년 이후 내포지방에서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 ‘박형화’가 배교한 바 있었고,²⁰⁾ 1795년에는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입국 사실과 관련된 옥사(獄事)가 발생했다.²¹⁾ 그리고 1797년 이후 1799년 사이에 충청도 내포 일대에서는 교회에 대한 탄압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²²⁾ 그리고 1800년 하반기 이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어 1801년에는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1801년 대박해가 일어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박해는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충청도에서 박해가 발생했던 곳을 살펴보면 충주와 인접한 청주 외에도 천안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내포지방이나 그 인근인 보령, 당진, 면천, 해미, 덕산, 홍주, 청양, 합덕 등 지역들에서도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검출된다.

박해가 일어났던 이러한 지역들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는 해미를 들 수 있다. 해미에서는 1799년 2월 29일에 박취득(朴取得)이 순교한 바 있다. 그는 홍주(洪州) 출신으로 1797년 홍주 관아에 체포되어 7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혹독한 심문을 당한 후 해미진영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해미진영에 이송된 이후에도 계속 심문을 당했다. 그가 체포되어 있던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고문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30여 세의 나이로 해미감옥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교했다.²³⁾

또한, 1799년 12월 해미감옥에서 이보현(李步玄)과 인언민(印彦民)은 매를 맞아 죽음으로써 순교자가 되었다. 이보현은 덕산 황모실의 부유한 양인출신이었다. 그는 24세 때에 황심(黃沁)에게서 천주교를 배워 입교했다. 그는 그 후 고향을 떠나 타관 생활을 계속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되었고, 감사의 명에 의해 출신지 관아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당시 해미의 영장(營長)이 덕산과 해미 두 고을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해미로 이송되었다. 해미에서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당했고, 천주교 신앙의 포기를 거부한 결과 옥졸들에게 타살되어 27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²⁴⁾

인언민은 이보현(李步玄)의 지인(知人)이었다. 그는 덕산(德山) 주래골에서 양반출신이었으며, 황사영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는 공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공주의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공주와 청주에서 심문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출생지로 이송되어 해미진영으로 보내졌다. 해미 영장도 그를 배교시키고자 했으나 그

20) 달레, 앞의 책, 상, 370쪽.

21) 달레, 앞의 책, 상, 379~381쪽.

22) 달레, 앞의 책, 상, 395~428쪽.

23) 달레, 앞의 책, 상, 410~416쪽.

24) 달레, 앞의 책, 상, 422~425쪽.

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그는 1799년 12월 15일 이보현과 같은 날에 63세의 나이로 타살되어 순교했다.²⁵⁾

한편 1801년의 신유교난 과정에서 김사집은 180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미진영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나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그는 당시 충청도의 병영(兵營)이 있던 청주(淸州)에 이송되어 1801년 12월 22일 청주 장터에서 곤장을 맞아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였다.²⁶⁾

그리고 1811년 해미에서는 박옥귀(朴玉貴)와 안정구(安廷九)가 참수되어 순교했다. 이들은 사학(邪學)을 계승했다 하여 해미진에 체포되었고, 1811년 12월 18일 금강(錦江) 나루 근처에서 참수되었다.²⁷⁾ 또한 1813년 4월 15일에는 보령(保寧)에 살던 황바오로가 체포되어 해미진영에 이송되었다. 그는 해미감옥에서 심문을 받은 이후 그 해 8월에 공주감영으로 다시 이송되어 그곳에서 10월 19일 순교했다.

해미감옥에서 옥사한 대표적 인물로는 김진후(金震厚)(1738~1814)를 들 수 있다. 김진후는 면천군 솔피(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출신이었다. 그는 교회창설 초기에 영세 입교했다. 그는 1791년이래 4~5회에 걸쳐 체포·석방되었고, 전주, 홍주, 공주 등 여러 관아에서 무수한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1801년의 박해 때 체포되어 배교한 후 유배를 당했으나 곧 해배(解配)되었다. 1805년 그는 다시 해미관아에 잡혔으나, 전일의 배교를 뉘우치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다. 그는 그 후 10여 년을 해미감옥에서 보내다가 1814년 10월 20일 76세를 일기로 옥사 순교했다.²⁸⁾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면, 해미를 비롯한 내포지방에서는 초기 교회사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다른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2) 선교 상황

(1) 천당(天堂)과 계목(契目)

충청도 내포지역의 천주교회는 그 전파과정에서 일종의 위계조직과 강령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실천하는 중심적 장소를 마련하여 회장 등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를 관장하고 있었다. 우선 무리를 이루어 독자적 규율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사실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당진 고산면 장항리의 배명복과 고개정리에 사는 임물오와 돌쇠(石金)·이봉 등 3명은 사학을 하는데, 그 중 배명복이 고산면의 괴수이다. 당초 설계(設契)하여 사학을 하는 자가 20여명이었다. 봄에 본관에서 찾아 체포했을 때, 계목(契目)

25) 달레, 앞의 책, 상, 425~426쪽.

26) 달레, 앞의 책, 상, 607~608쪽.

27) 『일성록』 순조 신미 47, 523, 113, 1215, 1220 : 『승정원일기』 가경 16년 동월조 참조.

28) 달레, 앞의 책, 상, 15, 42, 46~47쪽.

책자를 최광춘 집에서 차사(差使)에게 빼앗겼으니, 마침내 관에서 잡아 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심문하고 돌려보낸 자가 단지 7명에 불과하다. 만약 당시 계목을 관에 바쳤다면 체포된 자가 7명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고, 혹 바치지 않았다면 차사들이 반드시 뇌물을 받고 조작한 것이니, 이 일은 매우 괴이하다.²⁹⁾

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설계(設契)는 계를 무었다는 말로서 일정한 조직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계목(契目)은 계원(契員)의 좌목(座目)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 좌목 앞에는 계의 규범이 제시되고 있었다. 한편, 이 지역의 천주교 신도들은 집안에 별도의 예배처소를 설치했다. 이를 다음의 자료에서는 천당(天堂)은 신도들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였음이 틀림없다.

홍주 응정리에 거주하는 원백들 … 원백들은 집안에 따로 천당을 설치하고 가장 미혹되었으니, 이 무리를 만약 통렬하게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고, 이른 바 천당을 헐지 않으면, 그 형세를 보건대 사학을 버리고 정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이 더욱 미혹될 것이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³⁰⁾

한편, 천당의 다른 용어는 신당(神堂)을 들 수 있다. “홍지영 등 4명은 감결을 내어 잡아 가두었고, 본관을 시켜서 신당을 허물도록 했다.”³¹⁾는 자료에서 등장하는 ‘신당’의 경우에도 그 문맥을 살펴볼 때 신자들에게는 예배 장소였다. 이 신당이나 천당은 서울의 정광수(鄭光受)의 집에 설치되었던 예배처소와도 동일한 곳으로 추정된다. 이 천당이나 신당을 주관하는 인물들은 주로 가성직 제도 아래에서 신부를 맡아보았던 이존창과 같은 인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완숙의 남편인 홍지영의 집에 신당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개인적인 기도장소도 이와 같이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2) 지도층의 존재

이존창은 내포 신앙공동체의 형성에 지대한 공이 있던 인물이다.³²⁾ 그는 1791년경에 자신이 살던 여사울의 80여 호의 거주민 중 70여호를 개종시킬 정도로 천주교 선교에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그의 선교로 천주교에 입교했던 인물들이 다수 확인된다.

내포지방의 지도적 신자들은 주문모 신부의 영입에도 관여했다. 주문모의 영입

29) 박종악, 『수기』, 35a~35b. “唐韓高山而良項里裏明卜 及高蓋井里居林物五·石金以奉等三漢 方爲邪學 而其中裏明卜 乃是本而魁首也 當初設契而爲之者 合爲二十餘名 奉問自本官推提時 契日冊子自崔光春家見每於差使 而畢竟提納于官推問 而還只是七名 其時契日 若爲納官 則提政者 必不止於七名也 若不納 則差使輩 必得路而操縱也此甚可憐”.

30) 박종악, 『수기』, 35a~35b. “洪州應井里居元白契 … 元白契 則渠家中 別設天堂 最爲熾盛 此輩若不痛加懲治 所謂天堂 不爲毀撤 則顧其勢未由去邪歸正 而蟲蟲之徒轉爲詭惑 誠非細憂”

31) 박종악, 『수기』, 39b. “洪芝英等四漢 發甘提因 令本官毀撤神堂”

32) 달레, 앞의 책, 상, 979, 313쪽.

에 직접 참여했던 신도로는 우선 지황(池璜), 최인길(崔仁吉), 강완숙(姜完淑)을 들 수 있다. 강완숙은 주문모의 영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했다.³³⁾ 한편, 1799년 내포에서 순교했던 배프란치스코의 동생인 배마티아도 북경을 왕래하면서 주문모 신부를 입국시키는 데에 참여했을 것이다.³⁴⁾

주문모는 조선에 입국한 직후부터 박해로 말미암아 대략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보냈다. 주문모 신부의 피신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유관검의 증언이 있다. 즉, 유관검은 “홍산에 사는 이존창은 신부를 숨기고자 하여 그 집을 고산 땅으로 이사했다. 1795년 4월에 의목(柳觀儉)과 이존창은 계동의 최인길 가로 신부를 찾아보고 그를 시골집으로 맞아 들였다.”³⁵⁾고 말한바 있었다.

한편 주문모는 이 피신 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방의 신앙공동체에 대한 순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795년 5월 이후 내포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했다.³⁶⁾ 그는 람포, 공주, 온양 등의 신앙공동체를 방문했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³⁷⁾

한편 주문모는 서울의 최창현을 총회장으로 삼았고,³⁸⁾ 그리고 정약중을 명회장(明會長) 즉 명도회장(明道會長)으로 임명했다.³⁹⁾ 이렇게 회장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는 덕산(德山) 출신인 정베드로(鄭山彌?)을 내포지방의 회장으로 임명했다.⁴⁰⁾ 덕산의 정산필(鄭山弼)은 충청도 사학괴수(邪學魁首)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⁴¹⁾ 주문모는 1795년 5월 이후 내포지방으로 피신했을 때 정산필, 김승정 등을 그 지역의 회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에서 회장으로 지칭되었던 ‘김승정’도 교회 내에서의 직책으로 보아 지도적 인물 중의 하나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다.⁴²⁾ 그를 주문모가 회장으로 임명한 듯하다.⁴³⁾ 그밖에 내포에서 주로 활동했던 이취안(李就安=李安正)과 송복명(宋福明=宋云端)도 지도층의 일원으로 파악된다.⁴⁴⁾ 또한 천안의 최구두쇠(崔巨斗金)와 같은 인물도 1791년 이후에는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3) 선교 방법

(1) 서적을 통한 전파

1784년을 전후한 시기의 신도들은 주로 한문 서학서를 통하여 천주교에 접하

33) 『사학정의』, 363~364쪽.; 『황사영백서』, 66행.

34) Dallet, ibid., tome 1, p. 237 ; 달레, 앞의 책, 상, 614쪽. 배마티아도 1801년에 교수되어 순교했다.

35) 『사학정의』, 233~234 쪽.

36) 주 89~96 참조.

37) 달레, 앞의 책, 상, 390 쪽.

38) 황사영, 『황사영백서』, 32행.

39) 황사영, 『황사영백서』, 42행.

40) 달레, 앞의 책, 상, 420 쪽.

41) 『사학정의』, 44쪽. 달레, 전개서, 상, 419쪽.

42) 달레, 앞의 책, 505쪽.

43) 달레, 앞의 책, 상, 505 쪽.

44) 『사학정의』, 115, 218, 229 쪽.

고 있었다.⁴⁵⁾ 그런데 명청년간(明淸年間)에 한문으로 간행된 서학서(西學書)는 모두 358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1801년 당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120여 종 이상의 천주교서적들이 조선에 도입되어 있었다.⁴⁶⁾ 이들 서적 가운데 대략 80여종의 서적이 한글로 번역되어 읽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 서적들은 돈을 받고 거래되었으며, 서울의 세책집에서는 이 서적들의 세를 받아 놓아 거금을 벌었다는 기록도 있다.⁴⁷⁾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도 지방에 천주교 서적의 전파는 당연한 일이었다. 천주교 서적들은 천주교가 수용되던 초기에 신앙을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내포지방에서 거주하던 여신도 강완숙이 천주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도 그 지방에 유포되어 있던 서적을 통해서였다.⁴⁸⁾ 그리고 역시 내포지방 남포(藍浦)에 거주했던 임대인(任大仁)의 경우도 한글로 번역된 천주교 서적의 독서를 통해 입교했다.⁴⁹⁾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서적의 전파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 a-1. 요즈음 듣자하니 호우(湖右) 일대는 거의 집집마다 소장하거나 전하면서 암송하고 있으며, 언문으로 번역하거나 베껴서 부녀자와 아이들에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관장이 이를 금하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도리어 본받는 법으로 삼고 있다고 하니, 실로 하루 빨리 이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를 것입니다.⁵⁰⁾
- a-2. 충청도에서 천주교 서적이 성행한다는 것은 이수하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진산 군수 신사원이 앞서 예산에 있을 때, 민간에 있는 요사한 서적들을 거두어 관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전에 이미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에게 화답한 편지에서 이르기들 '예산의 촌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문 번역문 또는 베낀 서적들을 형리의 상자에 맡겨두었는데, 그 중에서 성교전설(聖敎淺說)과 만물진원(萬物眞源) 두 책은 모두 확실한 배경이 있다'고 하였습니다.⁵¹⁾

그런데, 1791년 당시 충청도 지방에 보급된 천주교 서적에 대해서는 박종악의 수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박종악의 수기에는 1791년 당시 관에서 압수한 천주교 서적 15종 194권 이상의 제목이 실려 있다. 이 서적 가운데 11종 이상이 한글로 번역된 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천주교 서적이 한글본 위주였다는

45) 이원순, 1976, 『명청래 서학서의 한국사상사적 의의』, 『한국천주교회사논문선집』 1, 143쪽.

46) 배현숙, 1981, 『17, 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제 3집, 41쪽.

47) 조광, 1985,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83쪽 이하.

48) 『황사영백서』, 65행.

49) 「사학죄인이가환등주안(邪學罪人李家煥等推安)」, 53쪽, 「(任大仁供口) 妾身居藍浦 無父母無妻子 而在鄉遇保寧丁生員 誘以邪學之好 故以謄書看之」

50) 이기경, 『벽위편』, 『홍낙안대천책문』, 1788, 1, 10, 14쪽; 차기진, 「내포지역의 복음전파와 사목 중심지 조사」, 제1차 성 김대건 신부 생가 및 기념관 건립 기념 세미나 발표문, 2002, 101쪽.

51) 이기경, 『벽위편』, 「전가주서 홍낙안 제자 문답」, 1791, 11, 2, 63~64쪽

사실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홍낙안의 상소는 과장된 내용이 아니었다.

이 지역에 전파되었던 15종의 책은 교리서인 『십계』, 『만물진원』, 『성세추요』, 「인진주(認真主)」⁵²⁾, 성사서인 『문답』, 『성사문답』, 기도서인 「구은축문(九恩祝文)」, 『성교일과』, 「성모피고경(聖慕魁告經)」⁵³⁾, 「점성수경(點聖水經)」, 『성경일과』⁵⁴⁾, 전례서인 『여미사규정』, 성인전인 『성년광익』, 윤리서(신심 묵상서)인 『칠극』, 『이십오언(二十五言)』 등 이었다.

조선후기 당시 대량 보급용 출판물은 목판인쇄에 의존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천주교 서적도 목판으로 인쇄되어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제시된 홍낙안의 편지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천주교 서적은 인본(印本)으로 간행되어 이미 충청도 천안과 예산 지방에까지 보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1791년에는 호남지방에도 인쇄된 천주교 서적이 전파되어 있었다.⁵⁵⁾ 이로 미루어 볼 때 인쇄본 천주교 서적은 매우 충청도 지방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집단개종의 가능성

조선에 교회가 세워진지 불과 17년 정도가 지난 1801년에 신자들이 1만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당시의 급격한 교세신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세의 신장은 일종의 집단개종에 준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초기 교회에서 드러나는 집단적 입교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다.

b-1. 이존창은 1791년 12월 30일 밤에 형에게 하직을 고했다. 그곳에 살던 서른 집이 넘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3백 가구가 넘는 그 동네의 모든 주민들도 그의 곁에 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 준 사람이 그였고, 그들을 입교시키고 영세를 준 것도 그였다. 그래서 그들은 제각기 아버지나 형이나 친구를 잃는 것 같았다.⁵⁶⁾

b-2. ‘원 시장’ 베드로는…… 홍주교을 옥전마을의 돈 많은 양민 집안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원 시장’이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구해주고, 자기의 자식으로 외교인(外教人)들을 권고하는 열성에 탄복하였다. 그는 외교인들 중 30가구 이상을 입교시켰다.⁵⁷⁾

b-3. 최여겸 마티아는 …… 한산고을에서 복음의 주요한 진리를 배운 다음…… 무장(茂長)으로 돌아와 대단한 열심히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신앙을

52) 『성교전설(聖敎淺說)』의 첫째 편, 『성교전설』은 1편, <인진주(認真主)>, 2편, <식기성(識己性)>, 3편, <명상법(明賞罰)>, 4편 <감강생(感降生)> 등 총 4편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천주를 인식하고 천주교로 귀의하도록 하기 위해 지술된 책이다. 이 책의 제1권에 해당된다.

53) 성모배고경, 즉 묵주기도로 추정된다.

54)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다. 혹 『성교일과』의 오기일 수 있지만, 1801년 한신애의 집에서 압수된 책 중에 『성경일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제목의 책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아마도 『성경직해』나 『성경광익』 안에 있는 기도문이 아닌가 추정될 뿐이다.

55) 趙沅, 1989, 앞의 책, 89면.

56) 달레, 앞의 책, 상, 365쪽.

57) 달레, 앞의 책, 상, 366-367쪽.

사방에 알게 하고 자기가 받은 은총을 전해 주기 위한 그의 열심과 신심이 대단하여 많은 외교인을 입교시켰다. 고향에서 박해가 맹렬히 일어나자 그는 한산 처가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수많은 교우가 붙잡혔는데 그 중에는 그가 입교시킨 사람 28명이 끼어 있었다.⁵⁸⁾

위의 자료 중 b-1은 이존창이 1791년 공주관아에서 석방된 직후 자신이 거주하던 천안군 여사울을 떠나 홍산(鴻山)으로 이주할 때의 광경을 서술한 달레(C.h. Dallet)의 기록이다. 달레는 여기서 이존창이 300여 가구가 넘는 그곳의 모든 주민들을 입교시켰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집단개종에 준하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뜻한다.

한편 자료 b-2는 양인 신분을 가진 원 '시장'이 응전리의 주민 30여 가구를 입교시켰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촌락의 대체적 규모를 감안하여 생각할 때, 마을 주민 중 대다수를 입교시켰음을 뜻한다.

또한 자료 b-3는 최여겸의 포교활동을 전하고 있다. 그의 부친이 “자그마한 양반 직첩(petit titre de noblesse)⁵⁹⁾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인일 수밖에 없었던 최여겸⁶⁰⁾은 자기의 고향인 무장(茂長)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여 많은 사람을 입교시켰고 그가 입교시킨 사람 중 28명이 체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 한 리(里)의 평균 호구수가 30호 내외였음을 감안하면,⁶¹⁾ 이는 그가 자신이 살던 향리의 주민 중 상당수를 입교시켰음을 뜻한다.

또한 원시장의 경우에도 외교인 30가구를 입교시켰다.⁶²⁾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은 집단개종 내지는 집단입교에 준하는 사실로 파악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초기 교회에 있어서 급격한 교세신장이 오히려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내포지방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정부 당국자들의 사태판단에도 영향을 미쳐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1801년의 박해 이전부터 천주교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위기의식은 점차 강화되었고, 천주교의 성행 현상을 강상지변(綱常之變)으로 보려는 견해가 강하게 제시되었다.⁶³⁾

58) 달레, 앞의 책, 상, 521쪽.

59) 달레, 앞의 책, 중, 200쪽.

60) 『황사영백서』, 제74행, 『전주상인성취자여겸자(全州常人性崔子汝謙者)』 황사영은 여기서 최여겸이 전주인이었고 그의 신분이 상인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여겸의 출생지에 관해서는 Dallet의 기록이 더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allet가 최여겸의 “아버지 자그마한 양반직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한 것과 황사영이 그를 상인으로 파악한 것이 반드시 모순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기록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최여겸의 아버지는 공명첩을 사서 신분을 상승시킨 인물로 추정되며, 그러기 때문에 전통적 양반이었던 황사영은 최여겸을 상인으로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61) 리별(里別) 편호수(編戶數)가 밝혀진 자료는 『여지도서(輿地圖書)』 중 일부 군현의 자료를 들 수 있다. 경기도 양주군의 읍내면에 모두 16개리가 있으며, 각 리별 평균편호수는 27.44로 나온다. 그리고 다른 리의 평균편호수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62) 달레, 앞의 책, 상, 367쪽.

63) 『일성록』 정종 정미 4월 27일 사간 이사렴계연조(司諫 李師廉啓言條) 참조.

3. 사회문화적 특성

1) 천주교 인식

(1) 충효론과 대군대부

당시의 신도들은 천주를 대왕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군주도 ‘우주의 대왕’인 천주의 피조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내포지방의 신도였던 이도기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실제적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그는 말하기를 “처음에는 천주 한 분만 계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입니다. 창조 후에 부부와 가족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 공자, 맹자, 임금과 신하 등은 천지창조 후에 생긴 것입니다”⁶⁴⁾라고 함으로써 천주가 모든 사회제도나 인물보다 더 위대한 창조주임을 설명하였다.

천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한 사례로는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나 그 지방의 풍헌을 지낸 바 있던 김 ‘토마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천주교 신앙에 비하면 나라와 집과 가정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⁶⁵⁾ 이와 같이 초기의 신도들은 천주가 군주보다 높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었다.

천주는 부모께 효도와 임금께 대한 충성의 참 근원이다. 부모께 대한 효도와 임금께 대한 충성은 십계의 제 4계에 명령되어 있다.⁶⁶⁾

이는 이도기의 증언으로서, 천주교에서는 충성과 효도의 참 근원을 천주로 보고 있으며, 군주에 대한 충성을 천주십계의 제4계에서 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당시 조선에서 선교하던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의 주장과 같다. 주문모 신부는 신문과정에서 천주교가 충군애군(忠君愛君)을 가르치며, 국가의 평안무사를 기원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1. 천주교의 도리는 사람들에게 충군애군(忠君愛君)을 가르친다..... 나는 천주교를 믿는 여러 사람과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주교는 국가의 평안무사와 오곡의 풍요와 세상의 영정(寧靖)을 기원하고 있다.⁶⁷⁾

c-2. 천주성교(天主聖敎)는 충효자애(忠孝慈愛)를 힘쓸 일로 삼고 있으므로 온 나라가 흠모하면 실로 왕국의 무강(無疆)한 복이 될 것이다.⁶⁸⁾

64) 달레, 앞의 책, 상, 402쪽.

65) 달레, 앞의 책, 중, 398쪽.

66) 달레, 앞의 책, 중, 402쪽.

67) 『사학죄인김려등추(邪學罪人金麗等推)』, 416쪽. 「(周文誤供口) 西敎之道理 敎人忠君愛君……(矣身) 方與諸奉敎人 每日誠切祈求 西敎願國家之平安無事 五穀豐饒西方寧靖」

68) 『황사영백서』, 111행, 「天主聖敎 以忠孝慈愛爲工務 通國欽崇 則實王國無疆之福」

이와 같이 주문모는 천주교의 교리에서는 충효를 강조한 바 있었고, 당시의 신도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왕권은 조선 왕조라는 전근대적인 국가체제 아래에서 최대의 권위로 존중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시까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던 왕권에 대하여 신도들이 이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의 신도들도 왕의 권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전은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의 교리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왕이 아닌 천주를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천주교를 신봉하는 한 그들은 결과적으로 왕의 권위를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절대적인 왕권의 상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 특성

(1) 신분적 특성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곳은 내포지방 일대이다. 특히 홍주, 덕산, 천안 등지에는 양인이나 천인 출신 신도들이 중심이 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충주 지역에는 양반이 주축을 이룬 교회가 성립되었던 바, “충주는 한강상류로서 물길로 왕래가 편리하므로 예부터 이곳에 사대부가 많이 입거했다”는 이중환의 기록을 참고하면,⁶⁹⁾ 충주지역 주민구성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근기지방 양근의 권철신 가문의 통혼권에 충주가 포함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혼척관계를 통하여 충주에 천주교가 전해졌던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성립된 충주의 신앙공동체는 양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홍낙민의 경우에도 예산의 양반가문 출신이었다.

반면에 이존창이 포교를 주로 담당했던 내포지방의 교회는 그 자신의 신분이 양인이었던 이존창이 주로 포교를 담당했던 지역으로서, 양인들이 그 신앙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⁷⁰⁾ 또한 정약용이 보외되었던 금정의 경우에는 천인 출신 역졸들의 상당수가 천주교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충청도 지역 천주교 신도들의 신분은 주로 양인이나 그 이하 신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포의 사도로 불리던 이존창의 경우를 통해서 이 지역 신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적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존창은 1798년경 천안의 장교로 차정(差定)되었다.⁷¹⁾ 원래 상천(常賤)으로 인식되거나, 사노비(私奴婢) 출신이라고 파악되었다. 그러던 그가 “군적(軍籍)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기록을 검토해 보면, 그는 아마도 사노비 출신이었지만, 어떠한 계기에 자신의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다고 생각된

69) 이중환, 『택리지』 〈괄도총론〉 충주조, 『忠州邑爲漢水上流 水路便於往來 故京城士大夫 自古多 卜居於此』

70) 『사학죄인이가환동추안(邪學罪人李家煥等推案)』, 125쪽. 李存昌供招, 『至于今年 差定將校 未嘗離官門一步 斷念邪學 今至五年矣』.

71) 『눌암기략(訥菴記略)』, 12b, 『李存昌 天安常賤也』; 『秋官志』, p.877, 『禮山民人 李存昌 已經刑治』.

다.⁷²⁾ 이러한 그가 다시 장교라는 서반(西班)의 하위군직에 임명된 것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천주교 신앙을 포기한데 대한 반대급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도기의 경우에서도 지방관이 그를 회유하고자 했던 사례가 드러난다. 그는 비록 글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성령의 학교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천주교의 덕생을 실천하는 일을 배워”⁷³⁾ 천주교를 포교했고, 1797년에는 “천주교인의 두목”으로 고발당했다. 이때 청양의 지방관은 그에게 배교를 권고하며 풍헌의 직책을 주겠다고 회유한 바 있었다.⁷⁴⁾

또한 초기 교회의 지도자인 이존창의 경우에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⁷⁵⁾ 그는 원래 천안의 ‘상천’으로도 불리었다.

(2) 평등 지향성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도들 가운데 양인 이하의 신분층이 많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신분에 대한 생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18세기 말 조선에 전파된 천주교 신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평등에 대한 지향성이 강했다. 물론 당시의 교회가 노비와 주인간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며 평등만을 강조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당시의 신도들 중 일부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에 관한 사례를 다음의 사료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 e-1. 천주교는 크게 평등한 것이다. 거기에는 대인도 소인도 없고 양반도 상놈도 없다.⁷⁶⁾
- e-2.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양반과 상민의 차이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⁷⁷⁾
- e-3. 세상이 끝날 때 모든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는 양반과 양인, 임금과 백성의 구별이 없어 모든 연령층의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주 성자 앞에 모일 것이고 그는 과거와 당시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⁷⁸⁾

위의 사료 e-1은 주문모 신부가 입국해서 활동하던 때 한 신도가 자신의 동료였던 신대보(申大甫)에게 이룬 말이며, 그는 여기서 신분질서를 뛰어넘은 천주교 신앙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료 e-3은 신대보가 후일 관청에 체포되었을 때 관장에게 한 말이며 사료 e-3은 내포지방의 신도였던 박취득(朴取得)이 신문받던 중에 대답한 말이다. 박취득은 천주 앞에는 양반과 양인, 임금과 백성

72) 『눌암기략(訥庵記略)』, 12b, 「李存昌 天安常曉也 嘗靈名於軍籍 爲文訴于太守 太守憐其才 而許免之」

73) 달레, 위의 책, 상, 400쪽.

74) 달레, 위의 책, 상, 401쪽.

75) 주명준, 1982, 「충청도의 천주교전래」, 『韓國敎會史論叢』, 34쪽.

76) 달레, 위의 책, 상, 388쪽.

77) 달레, 위의 책, 중, 127쪽.

78) 달레, 위의 책, 상, 413쪽.

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이와 같이 표현했던 것이다.

당시의 천주교도들은 천주교의 기본 교리인 '사랑'을 연장시켜 평등을 실천하며 수직적인 사회질서의 해체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주교 교리 자체에서 신분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 신도들의 양심성찰을 인도하는 책자인 『성찰기략』(省察記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

머음과 종이 주인이나 상던을 뉘워히거나 원망히거나 해로게 히기를. 머음과 종이 주인이나 상던에게 순명치 아니히거나 일을 착실이 히여 주지 아니히기를. 머음과 종이 주인이나 상던을 말노 속이거나 물건을 괴이기를. 주인이 머음이나 종을 몹시 꾸짖거나 욕히거나 딱리거나 힘에 과흔 일을 식이기를. 주인이 머음이나 종의 령육의 스경을 도라보지 아니히거나 스경을 언약대로 주지 아니히기를.⁷⁹⁾

이상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교회에서는 주인과 노비 내지는 머슴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양심성찰을 유도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의 교회가 주인과 노비의 상하관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당시의 교회에서 주인과 노비의 사이를 쌍무적 관계로 규정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머슴이나 노비의 의무뿐만 아니라 주인의 의무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의무조항을 위배한 사실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교회가 전근대적 신분제 사회의 해체에 현재적(顯在的) 기능(manifest function)을 발휘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주교의 역할은 신분제 사회의 해체와 사회적 평등의 구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도들의 천주교 인식 내지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신분해방을 향한 잠재적 특성과 관련하여 당시의 정부 당국자들은 천주교의 용납할 수 없는 특징으로 신분질서의 무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f-1. 원래 사학(邪學)은 본디 상·하의 구분이 없어 비복(婢僕)이라 하더라도 내장(內臟)처럼 연결되어 있다.⁸⁰⁾
- f-2. 사학도들은……비록 노예와 천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당(黨)에 들어가면 그를 보기를 형제처럼 하며 신분의 차이[등분]가 있음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우맹(愚氓)들을 광혹(誑惑)하는 술(術)인 것이다.⁸¹⁾

불평등한 신분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양반관료들의 눈에는 천주교가 상·하의 구분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파악되고 있었으며(f-1), 천인들이라

79) 『성찰기략』 17a-b.

80) 『사학정의』, 259쪽, 「元來 邪學 本無上下之分 則婢僕之口 亦且腸肚之連」

81) 『술암기략』, 12a, 「邪學因門……雖奴隸之口 一入其黨 視之若兄弟 不知有等分 此其誑惑愚氓之術也」

하더라도 일단 천주교에 들어가면 신분의 차이를 뛰어 넘어 형제처럼 서로를 대우하고 있었던 점이 바로 천주학이 일반 민인들에게 환영받는 까닭으로 보였던 것이다(f-2).

(3) 신분 평등의 실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던 신도들의 실천적인 사상은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도들의 태도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낮은 신분층은 백정(白丁)이었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아왔다. 충청도 홍주 출신 백정이었던 황일광(黃日光)과 황차돌(黃次斗) 형제는 당대 최고의 양반지식인이었던 정약종과 함께 살았다.⁸²⁾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천민에 속했던 백정 출신 황일광은 영세 입교한 후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평등성과 신자들이 이를 실천하는 데에 감격했던 인물이다.

그리하여 황일광은 양반 출신 신자들까지도 자신을 “다른 신도들과 똑같이 집안에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그는 농담조로 자기에게는 자기 신분으로 보아,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 두 개가 있다”⁸³⁾고 말했다. 당대 최고의 양반이며 지식인이었던 정약종은 광주의 자택에서 백정 황일광과 같이 거주하면서 그 백정에게 지상천국을 체험시켜 주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었다.

또한 1801년 충청도 덕산에서 체포당했던 유 ‘군명’(Lou koun-mieng)과 같은 신도는 세례를 받은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기까지 하였다.⁸⁴⁾ 충청도 예산에 살다가 1780년 서울에 가서 중건관리가 되었던 양반출신 홍낙민도 서족(庶族)인 홍지영의 처 강완숙에게 천주교를 전함으로서 신분의 차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홍낙민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4) 무항산인(無恒産人)

충청도 지역의 신도들에게 자주 적용되고 있었던 말은 ‘항산이 없는 사람’ 즉 자신의 농토를 갖고 토지에 긴박되어 있던 농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18세기 말 조선은 지주제의 발달에 따라 토지 집중현상이 일어났다. 그 당연한 결과로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여 항산(恒産)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유리(遊離)되어 갔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충청도 내포지방에서 거주하다 제천 배론(舟論)으로 거처를 옮긴 김귀동(金貴同)과 그의 동료들을 지적할 수 있다.⁸⁵⁾ 또한 금정역(金井驛)의 역졸로 있다가 서울로 몸을 피하였지만 다시 금정(金井)으로 추쇄(推刷)당한 바 있던 김유산(金有山)의 행위도,⁸⁶⁾ 기존의 사회질서라는 권위에 대한 소극적인 도전

82) 조광 역주, 2001, 『역주 사학정의』 1, 222쪽

83) 달래, 앞의 책, 1, 474쪽.

84) 달래, 앞의 책, 중, 48~48쪽.

85) 『사학정의』, 142쪽.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향(離鄉)을 단행한 신도들의 행위는 전통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향을 단행했던 천주교도들에게는 「이향익적자(離鄉匿跡者)」⁸⁷⁾ 「동서표박지한(東西漂泊之漢)」⁸⁸⁾ 「사처주류자(四處周流者)」⁸⁹⁾와 같은 비난이 사형판결문 등에 기록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향리를 떠나 사처를 주류하면서 살았던 당시 천주교 신도들이 생활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

d-1. '장대원' 마티아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고공으로 지내다가, 곤궁을 견디지 못하여 유랑 광대패에 끼게 되었다. 입교한 후 그는 신도들이 경영하던 용기촌에서 일하면서 한 동안 열심히 살았다. 그러다가 그는 냉담하여 첩까지 얻게 되었으나, 신도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지는 아니했다. 본처가 사망한 후 그는 첩과 정식으로 혼인하고 다시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비를 끊임없이 보속(補贖)했다. 그는 1813년에 체포되어 공주에서 참수되었다.⁹⁰⁾

d-2. 배(裴)청모는 1799년에 순교한 배 프란치스코의 아들이다. 부친과 함께 청주 감옥에 잡혀 있다가 부친이 먼저 처형되었다. 관원들이 그에게 부친의 시체를 매장하라고 하자 그는 부친을 묻은 후 도망쳤다. 그는 1년 동안 뱃사공 노릇을 하며 피신하다가, 4~5년 동안 공주 땅에서 은신했다. 박해가 끝난 후 그는 면천 강문이에 정착하여 목수일로 연명하면서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전파시켰다. 1825년에 다시 체포되어 해미 진영에 압송되었다. 그러나 그는 석방되어 귀가할 수 있었고 1829년에 선종했다.⁹¹⁾

한편, 1799년 홍주에서 죽음을 당한 박취득에게 홍주의 관장은 천주교도들이 산곡(山谷)에 모여드는 사실에 관해 추궁하고 있다. 당시의 관장이 천주교도의 산곡은거(山谷隱居)를 두려워하고 이를 추궁했던 까닭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지방 부근의 농민저항운동자들이 산곡에 은거하며 반란집단을 형성해서 지방 관아에 대항했던 지난날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18세기 전반기에 있어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저항운동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농민저항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는 부안(扶安)의 변산(邊山)을 근거로 하여 봉기한 농민저항자집단이었다. 이른바 변산도적으로 불리우고 있던 강력한 이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인심까지도 흥흥해져서

86) 『사학정의』, 174, 242, 270쪽.

87) 『사학정의』, 168쪽. 「沈惑邪術 廢棄常業 離鄉匿跡 恣意請罰 藏置贖物 皆不畏法」

88) 『사학정의』, 158쪽. 「金國彬則 蕩敗家產 東西漂泊之漢」

89) 『사학정의』, 89쪽. 「西處周流 今雖見提云云」

90) 달레, 앞의 책, 44면.

91) 달레, 앞의 책, 108면.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마저 발생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변산도적들에게는 ‘산중에 은거하는 무리’(隱居山中之比)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⁹²⁾

이러한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홍주의 관장은 천주교도들의 ‘산중은거’를 그들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박취득에게 뿐만 아니라 1801년에 공주에서 처형된 김정득(金丁得)에게도 “산골에 숨어서 우매한 민중들을 함부로 유혹했다”는 죄명을 첨가시켰던 것이다.⁹³⁾

(5) 민중종교운동적 특성

1784년에서 1801년에 이르는 초창기의 천주교회는 일종의 민중종교운동적⁹⁴⁾ 성격을 띠며 전개되어 나갔다. 이 민중종교운동이 점화된 곳은 충청도의 내포지방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민중종교운동적 특성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그들이 지향했던 이념 이외에도 면천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를 통해서 확인된다.

면천 고을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체포되었다. 박취득(Laurent Pak)은 신도들이 여러 달 동안 갇혀 있음을 보고서 용감하게도 자주 그들이 갇힌 감옥으로 방문하여 위로하였다. 그는 어느 날 수인들이 조반을 먹고 있을 때 관문을 두드리고 과감하게 들어가 관장(官長) 앞에 서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사납게 매질하고 여러 달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무서운 죄가 아니냐’고 부르짖었다. 관장은 화가 나서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천주교 사건으로 옥에 갇힌 박일득의 동생으로 홍주에 사는 사람이란 대답이었다. 박취득은 즉시 체포되었다.……관장의 입장은 매우 난처하였다. 박취득은 매운 인망을 얻고 있었으므로 온 고을 안이 동요되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⁹⁵⁾

우리는 위의 자료에서 홍주출신 박취득은, 그의 형인 박일득(朴一得)이 수감되어 있던 곳은 홍주의 관할 구역이 아닌 면천 고을이었음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박취득은 그의 마을을 떠나 면천관아에 가서 항의했던 것이고, 그 결과 그가 체포되자 면천에서 민란의 초기 형태인 동요와 불평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박취득의 체포가 면천에서 일어난 민란동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홍주와 면천은 근접지역이므로, 홍주에서 살던 박취득의 인망이 면천 일대에까지 미

92) 『영조실록』, 영조 3년(정미) 11월 계유조 「上向邊山盜賊事 臣德曰 近值蓐歉 處處有盜 然此不過鼠竊也 元非黃巢之徒 隱居山中之比 傳之者過也 史臣時稱以邊山盜賊 妖言無所不至 都下人心洶洶 徒有避難出去者」

93) 『사학정의』, 168쪽, 「익처산곡 광혹우맹」(匿處山谷 詭惑愚蒙).

94) 노길명, 1984, 「한국 신흥종교운동에 대한 기능론적 전망」, 김영정 편, 『집합행동론』, 346쪽에서는 민중종교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민중종교운동은 “사회의 중심적 가치체계가 사회의 내적 요인이나 외적 상황에 의해 손상됨으로서 사회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자신들의 생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카리스마적 창시자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가치를 부분적 내지 전면적으로 재구성코자 시도하는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에 의한 사회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조선 후기에 발생한 대부분의 비록신앙 관계 사건과, 상당수의 감결사상 관계사건에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95) 달래, 앞의 책, 상, 365~366쪽.

치었고, 이 때문에 면천에서 민란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91년 면천의 사건은 사실 박취득이나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유도되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이웃 고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의 체포가 민중동요로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에는 어딘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취득에게는 생사를 같이하는 절친한 세 명의 동료가 있었다.⁹⁶⁾ '원 야고보'(Jacques Ouen), '정 베드로'(Pierre Tsieng), 그리고 '방 프라치스꼬'(Franscois Pang)라는 세례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동료들은 모두 1799년 박취득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행적을 검토해 보면 박취득이 제 1차로 면천옥에 수감되었던 당시, 이들은 자유의 몸이었음이 거의 틀림없다. 그러므로 면천의 민중동요는 아마도 이러한 박취득의 동지들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면천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점은 박취득의 체포는 동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일개 천주교 신도 때문에 민중에 의해 관장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천주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도된 이와 같은 현상은 사건당사자인 관장에게는 천주교도의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은 천주교도 내지는 천주교 동조자들이 실력행사를 통해 관장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한국초기 천주교사에서 충청도 지역은 당대 천주교가 드러내고 있던 사회적 기능을 가장 선명히 제시해 주는 사례가 된다. 당시 내포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는 민중종교운동의 움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는 신도의 상당수가 양인 출신이었다는 사실과도 관계된다.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했던 처지를 극복해 나가려던 과정에서 천주교에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황일광의 환회를 통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천주교가 당시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신분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했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신분해방이 전제가 되는 근대사회의 형성에 사상적 기반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침 없는 탄압에 시달리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 지역의 천주교도들은 강력한 현실 부정의 의식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고를 통해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96) 달래, 앞의 책, 상, 416쪽.